

# “우리는 전남 도민 불편 해결사”

### 전남도 민원메신저 285명 위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 행정-도민 징검다리 역할

전남도는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불편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12기 민원메신저 285명을 위촉했다. 지난 10일까지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 전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민원메신저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



가스 저장 등 지역 맞춤형 캠페인 활동과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한 제12기 민원메신저는 벌써 178건의 고충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등 예년보다 더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 안전 84건, 행정 37건, 환경 31건, 문화관광 8건을 비롯해 정책제안 10건 등 다양한 제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원메신저의 제보를 통해 도내 주요도로 시설 정비, 호수공원 산책로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시군 누리집 내 장애인 차별용어 변경, 전

남 사람이 서포터즈 가입자 대상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발송 제안 등 도민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주민과 공감·소통을 하며 지역 불편사항을 고쳐나가는 민원메신저의 우수활동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원메신저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 시동

### 전남도립도서관 36곳 순회

전남도립도서관이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도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책책빵빵’이 지난 13일 진도초교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책책빵빵’ 서비스는 1인당 최대 10권을 빌려주는 도서 대출,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DVD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는 7월 20일까지 도내 11개 군지역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군부대, 노인장애인시설 등 36곳을 찾아간다. 하반기 방문 지역은 7월 중 희망지를 조사하고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책 읽은 전남’ 문화를 확산하는 등 문화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국제개발협력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 기업 해외 진출 교두보 등 기대

전남도가 국제개발협력(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발굴을 통한 저개발국 지원 선도 및 지역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정부나 정부기관이 다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 기술, 경험 등을 말한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전남도립도서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담당하는 실무관과 시·군,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조정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팀장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역할’, 차원규 농촌경제연구원 박사의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방

안’, 김용국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의 ‘전남 체류 외국인 현황과 대책’, 채규혁 한국아이티컨설팅 본부장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프로젝트 사례 소개 및 작성 방안’ 등이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터 시작해 프로젝트 설계와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식 전남도 국제관계 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이뤄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완도수목원 동백 전시원 170여종 각기 다른 매력 동백 정취에 젖어보세요

봄가시, 황칠 등 784종의 희귀 난대수종의 보고이자 국내 최대·유일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에 동백꽃이 만발해 내방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완도수목원은 1991년 개원한 이래 다양한 동백나무를 수집해 동백 전시원을 조성했다. 동백은 겨울의 꽃이자 봄을 깨우는 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피기 시작해 올해 3월 들어 만개해 수목원 곳곳에서 170여 종의 동백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

동백 특화림이 있는 삼두리 일원에도 동백꽃이 가득하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동백 자생지로 아토피와 피부질환에 탁월한 베타피넨(β-pinene) 등 피톤치드 물질이 다른 숲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 지난해까지 5km의 동백 체험숲길을 조성해 청정 남해안 조망과 함께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어 산책코스도 제격이다.

완도수목원 관계자는 “푸른 난대림과 함께 겨우내 강추위를 이겨낸 붉은 동백꽃을 감상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380t 규모 최신 친환경 병원선 진수

### 6월 인도...동부권 77개 섬 투입

전남도가 지난 9일 부산 강남조선소 선대에서 전남 동부권 섬 주민 건강을 책임질 친환경 병원선 ‘전남511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사진>

현재 공정률은 88%로 건조 후 각종 장비 운용 및 시운전을 거쳐 6월 인도되면 동부권 5개 시·군 77개 섬 주민 건강증진과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과 정병태 강남조선소 사업본부장, 이동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장, 조성진 극동선박설계 대표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박 진수식은 육지에서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로, 예부터 세계 각지에서 전해오는 풍습이다. 이날 행사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비는 안전 기원제와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삼폐인 브레이크, 처음 건조된 선박을 세상으로 보내는 의식인 진수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511호’는 국비 85억원을 포함해 총 127억 원을 들여 전장 49미터, 폭 9.5미터, 길이 3.3미터, 380t 규모로 승선인원 48명 최대 항속거리 560마일 성능을 갖춘 최신식 선박으로 건조된다. 섬 지역 낮은 수심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워터 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환경친화적 전기복합추진 장비를 탑재해 깨끗한 해



양환경 조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취약지인 섬 주민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고 골밀도 측정 장비와 생화학분석기 등 최신 의료 장비도 갖춘다.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이 가능하도록 기존 병원선보다 3노트 증가한 최고 18노트(33km/h)의 속도로 운항하도록 건조해 섬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현재 병원선 2척을 여수권(전남511호)과 목포권(전남512호)으로 나눠 운영해 11개 시·군 167개 섬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2만5000여 섬 주민을 진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무늬만 지역업체’ 걸러 낸다

### 현장확인제도 본격 도입

전남개발공사가 지역업체의 수준 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려 서류상으로는 분사 주소를 전남지역으로 둔 ‘무늬만 지역업체’를 가리기 위해서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일반용역 및 물품은 3.3억원 미만은 지역제한 입찰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의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찰참여업체의 전남지역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했다.

그러나 타 지역업체가 서류상으로는 전남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사가 발주하는 지역제한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도 수주기회를 받지 못하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계약단계부터 현장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확인제도는 입찰공고부터 인내가 이뤄지며, 개찰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위한 사무공간, 최소한의 사무설비, 직원 상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지역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격심사 부적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사는 계약체결 전 진행되는 적격심사에 대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심사서류를 접수 ‘찾아가는 계약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개발공사 차장소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장확인제도를 통해 무늬만 지역업체의 입찰참가를 방지해 실질적인 지역업체들이 경쟁하는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